

심리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정 영 윤*

- I. 서 론
- II. 청소년심리연구의 역사적 개관
- III. 청소년심리연구의 방향
- IV. 청소년의 본질과 특성
- V. 청소년문제
- VI. 전망과 과제

I. 서 론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은 오랫동안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특히 청년심리의 연구와 지도문제가 주요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와 효율적인 대처방안수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문제가 부가되어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아왔다.

이러한 청소년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된 것은 사회문화의 변천과 사회구조적 성격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겠다.

첫째,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사회가 되어가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문화가 미처 정립되지 못한채 전통문화가 붕괴됨에 따라 행동규범과 가치관이 혼란해져 인간육구의 적절한 통제수단이 무너지게 되었고

둘째, 자본주의, 기계문명,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시장의 상품화하고 사회의 부품으로 전락시켜 존엄성이 상실되고 소외현상이 심화되어 자기학대 내지는 자기존재확인을 위한 여러가지 행위가 부정적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Manheim, 1951; 고영복, 1964)

셋째, 퇴폐, 소비풍조, 물질만능주의, 기술만능주의 등 현대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이 청소년의 주변환경으로 작용하여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넷째, 주변환경과 개방된 성 풍속등은 신체적, 생리적 성숙은 빨라지게 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은 길어짐으로서 에릭슨이 말하는 역할유예기간 *moratorium* Erikson, 1967 이

*한국의국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연장되어 정체감의 혼란현상의 지속과 사회에 책임이 없는 주변인 *marginal man*으로서 오래 남아 있게 되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부적응 문제를 유발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섯째, 교육이 입시교육과 같은 시험준비교육에 치중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윤리, 양심, 가치관 등 정의적 측면의 교육을 소홀히 하여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가치관 및 정의적, 성격적 지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문제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청소년문제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심리학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사회·환경과의 관계보다는 발달과정상의 청년기의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청년기의 특징과 특성을 이해하려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청년기의 문제를 사회적·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조건을 포함하여 사회속에서의 청소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치·사회·문화등의 어느 면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홍수, 전통사회에서 대중사회에로의 이행에 따르는 전통규범의 붕괴와 가치관의 급변, 입시경쟁의 부담, 남북 이데올로기 대결로 인한 국민정신의 분열,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과 적대의식 등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정체형성의 장애를 제공하고 불안을 야기시켜 반항, 비행, 범죄 등 현실 도피적 또는 공격적 행동등으로 나타나게 한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전문가들은 청소년문

제를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상의 문제로 보아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제로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청년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의 행동이 청년기 특성에 부합된다고 볼 때는 용인하고 이해해 주려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도도 수용적·관용적 태도 위에서 예방적 지도책을 수립하려 하며 일탈된 행동이 유발될 때는 발달과업상에서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려한다. 반면에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청년기 발달과업상의 특성과 함께 청소년의 행동과 사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 및 교육적 환경을 검토하고 이러한 환경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과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병립하려 하기도 한다.

청년을 어떤 존재로 보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방안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주요한 당면과제임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심리연구를 개관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고찰한 다음 청소년문제를 규명·정리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심리연구의 역사적 개관

심리학이 청소년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Hall(1916) 이전에도 청소년심리발달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왔다.

Aristoteles(Muuss, 1971)는 인간의 발달기를 각 7년씩으로 된 세 가지 단계로 분류했는데 0~7세를 유아기, 8~14세를 소년기, 15~21세

를 조기성인기(청년기)라 했는데 이러한 발달분류는 근대 심리발달에서도 대체로 청년기로 보는 연령과 유사하다. 그는 도덕적인 성격은 선택의 결과라하고 선택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특성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선택에 의해 자신의 성격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스스로 하는 신중한 선택이 성숙에 필요하기 때문에 Aristoteles의 발달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Margaret Mead 등은 오늘날의 장기화된 교육과 의존성이 청소년의 성숙을 저해할 정도로 그들의 선택권을 감축시켰다고 하고 있다.

또한 Aristoteles는 청소년의 성격형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육체적 욕망중에서 동요하고 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성문제이다.

② 젊은이들은 강력한 정열을 가지고 있으며 절제없이 정열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③ 청소년들의 욕망은 변할 수 있고 또한 무상하며 욕망이 지속되는 동안 그들은 난폭하나 재빨리 끝나게 된다.

④ 청소년들은 그들의 애정과 명예에 힘입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다룰 수 없고 만약 불평등하게 다루어졌다고 여긴다면 쉽사리 분노하게 된다.

⑤ 청소년들은 미래에의 관심, 용기, 확일성, 이상주의, 우정, 진취성들을 바란다.

이와같이 Aristoteles의 주장은 현대 청소년 심리학에서 논의되는 내용들과 흡사하다.

중세에서는 인간의 성격발달 및 청소년문제의 연구도 정제되었으며 종교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보겠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며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창조론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질적 차이를 인정치 않았으며 양적인 증가로 인정하였고 교육적인 목표도 엄격한 신학적, 도덕적 규율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청년기 특성에 대한 연구나 이해가 거의 없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Rousseau에 이르러 교육이 학생들의 개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습을 경험에서 시작되는 귀납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발달과정에서 여러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였고 사춘기를 새로운 탄생으로 인정하였다. Rousseau에 의하면 발달단계가 인류발달의 어떤 단계와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류가 동물과 같은 생활단계와 야만단계, 이성단계,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성숙단계를 거쳐 발달되었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후에 Hall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지만 성격발달에 있어 교육·문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학적 심리학으로서 최초의 청소년심리학자는 Hall(1844~1924)로 기록될 수 있다.

Hall은 발달이 신체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는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다. 발달과 행동은 보편적이며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변하지 않는 형태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Hall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12, 13세로부터 22, 24세 사이라고 하고 폭풍과 노도 *Strum und Drang*의 시기라고 하였다. Hall은 청소년기를 인간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였다. 이때는 파괴와 우정 그리고 고독과 격리를 원한다. 동료집단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감수성과 친절, 때로는

냉담성과 잔인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 열광적인 호기심과 발견, 탐험하고자 하는 의욕과 함께 무관심과 비활동적인 동요가 있고 여하한 종류의 권위에도 반대하는 혁명적인 과격주의가 수반된 권위와 이상에 대한 동경이 있다.

1879년 Wundt의 심리학의 대두 이래 발달심리학의 입장에서 청년심리연구가 활발이 있어왔다. Freud, Otto Rank 등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청소년발달에 관한 연구, Erikson의 사회·심리적 발달단계로서 청소년연구,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입장, 사회심리적 입장, 인지발달에서의 청소년연구등 과학적 심리학으로서의 청소년심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지도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Freud는 신체적 생물학적 발달에 따른 심리·성욕발달과 함께 청소년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인간발달을 구강기, 항문기, 잠재기, 성기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성기기는 청소년기로서 앞의 모든 단계가 통합되는 단계로서 신체적 변화의 자각과 성호르몬의 분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12, 13세경 이후부터 18세 내지 20세기로 보았다.

이때는 성적 긴장과 Oedipus 대상을 소생시켜 불안을 체험하며 공격성과 어색함과 같은 행동적 변화가 육체적 변화와 연결된다.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며 경제적 사회적 성적 독립을 추구해 나간다.

Freud는 인간의 생물적 본능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요소의 작용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모든 사회의 도덕, 희망, 그리고 규범들이 양심, 마음의 규제라고 하는 초자아의 발달을 거쳐 개인의

성격의 부분이 된 것으로 본다. 그는 청소년기에 있어 일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것을 중요시했으며 정신구조 즉 id, ego, super-ego의 균형발달에 관심을 두었고 이들 정신구조의 무의식적 억압과 갈등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자아능력의 배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Rank (Muuss, 1971)는 Freud의 비관적 인간관 즉 인간성격은 억압되고 신경과민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자신을 형성하고 환경을 수정하는 하나의 힘이요 적극적인 요소인 「의지」를 상정하고 의지를 본능적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통합된 힘이라고 보았다. 청소년들에게는 사회가 인정하는 또 필요로 하는 자립과 독립을 성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립과 독립을 위한 투쟁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대인관계와 활동성에 따라 좌우된다. 사춘기에 있어 육체적 성활동의 시작은 새로이 이룩한 독립성을 위협한다. 그러나 이 위협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적 필요성에 기인된다. 이것은 스스로 자립을 위한 내부적인 의지와 의 싸움이다. 청소년은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두가지의 방어형태 즉 혼돈과 금욕주의를 택한다.

Rank는 의지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내적·외적 세력으로부터 의지를 자유롭게 해야한다. 자신의 이념을 희생하고 실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실재에 적응해 나간다. 보통 청소년들은 이 단계에 머문다.

둘째는 의지와 반의지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자아비판과 열등감 그리고 신경과민증세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이 된다.

세번째 단계는 의지와 반의지 그리고 이념형성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제2단계 에서처럼 외부세계의 요구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으며 자신과 이념의 조화를 이룬다. 이 형의 사람은 잠재력을 의식하고 자신에 차 있다.

Rank는 이렇게 자율의지와 반의지의 투쟁을 적응과정으로 보았다.

Erikson은 Freud의 정신성적발달단계를 수정하여 사회·문화·심리학 요인에 따른 8단계의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청소년기를 정체를 형성하고 역할을 배워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시기로 보았다. 청소년은 신체의 환상과 자아의식을 위협하는 자체 내의 신체적 혁명과 직면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자아의식의 확립을 도모한다. 집단에 동일시하고 자신의 발견과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이때는 스트레스가 큰 시기이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이상주의로부터 파괴주의까지 사랑에 빠지거나 공부에 몰두하거나 불안 발작에 빠지거나 반항과 공격행위를 하거나 갖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직업정체에 관한 확고한 선택을 내릴 수 없을 때 역할혼미가 일어나며 소위 정체위기를 체험하게 된다.

Erikson은 좌절감을 갖게 하는 제약에 도전하고 승화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Spranger는 신체적 변화가 아닌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정신구조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개인에 있어서 독점적인 가치방향이 성격형성에 결정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청소년은 성숙에 도달했을때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재탄생의 형태로 경험하는데 이때가 폭풍, 긴장, 위기의 시기이며 성적변화를 가져온다. 다른 경우는 큰 변화없이 사회의 가치를 배우고 수용하기도 하며 또 다른 경우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향상하고 자신의 정력과 목적지향의 노력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도 한다.

청소년은 최초로 하나의 다른 실체로서 자신을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이 발견한 독립성을 그의 행동에 통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학교가 청소년 기간에 존경, 독립, 자결, 인정을 위한 증가된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청소년의 반항, 소극적 행동등이 나오게 된다. 또한 그는 성지식의 교육이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위로부터 지나친 성교육으로 인하여 잘못된 성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령과 환경에 따른 적절한 교육내용의 편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다.

Margaret Mead(Mead, 1950 ; Muuss, 1971)는 사모아의 원주민의 생활을 연구하고 거기서는 청년기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는데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도 필요없고, 사회구조가 단순해서 생활을 위한 기술과 예절 규범도 간단해서 장기간 배우고 이의 실천을 위한 갈등을 겪어야할 필요도 없으며, 성적으로 억압이 없이 성숙과 동시에 개방되며, 적응을 위한 개인간의 경쟁의 필요가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간의 역할도 서구사회와 반대여서 결국 성격도 서구의 남녀와 반대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결국 청소년 연구에 있어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가 되었다. 그

러나 생물학적 요인을 동한시킨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Havighurst(1951)는 인생의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였는데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자기의 신체조건을 받아들여 남성적, 여성적 역할을 수행
- ② 양성, 동년배, 친구와 새로운 관계 수립
- ③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자립
- ④ 경제적 자립의 확신 성취
- ⑤ 직업에 대한 준비와 선택
- ⑥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적기술과 개념의 발달
- ⑦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의 욕망과 성취
- ⑧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
- ⑨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계관에 조화되는 의식적 가치의 설정

위의 발달과정중 1, 2, 8항은 생활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3, 5, 6항은 사회적 요인이며 4, 7, 9항은 특정사회에 나타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Havighurst의 발달과업은 앞에 언급된 제이본들을 통합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한편 Gesell(1948)은 Hall의 「질풍노도」의 개념과는 달리 청소년을 정규성은 없지만 결실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발달원칙의 이해를 민주주의와 결부시켰는데 민주주의의 진화는 우리 문명이 지금껏 성취한 것보다 더 아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중추적 과업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며 발달은 연속적인 표본과 순환속에서 이루어지며 성숙을 향해 나선형 경로의 발달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은 발달에 있어 정체현상 또는 일시적 퇴행행위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Lewin(송종두 역, 1981)도 청소년기를 성인

기로 가는 전환기로 보고 이 전환은 길고 커다란 변화요, 빠른 속도의 변화이며, 또한 아동기 이전단계와 비교하여 생활공간을 구분짓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이것은 청소년이 행동의 불확실성을 낮게할 지각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영역으로서의 돌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한계선상의 인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서 불안전 불확실 자기중심의 내적인 갈등과 추방 가능성이 있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충돌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Piajet(박아청 역, 1983)는 인지발달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믿고 인지성장의 적극적 참여를 인정했는데 참된 진리란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도덕적 선이란 근본적으로 자립적인 것이며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는 청소년기에 인지발달이 최고로 발달되지만 청소년 이후도 계속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연구의 개인심리에 관련된 이론적 측면은 위의 언급된 내용 외에도 많이 있으며 청소년의 이해와 행동특성의 개념 내지 유형화에는 큰 공헌을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현상분석에서 한걸음 나아가 집단 또는 개별사례의 이해와 지도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것은 직업지도활동, 정신위생활동, 심리교육과 상담치료가 그것이다.

직업지도운동은 1895년 Merrill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탐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직업배치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추수지도를 한 것이 최초의 시도로 보고되고 있다(Brewer, 1942).

한편 Parsons는 보스톤에 1908년 직업지도국을 세워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조건과 자격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직업과의

상관과 미래예측등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미국 각지로 확대되어 발전되고 현재 직업사회와 기회의 다양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되어 발전되고 있다.

한편 정신위생운동은 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위생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1922년 예일대학에 최초로 정신위생과가 설립되고 생활지도가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되어오고 있으며 상담과 치료의 발전에도 촉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탈된 청소년의 행동과 사고를 지도하고 적응 강화와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상담이론, 심리교육 프로그램(Miller, 1974, Rogers, 1942) 등이 발전되었다.

III. 청소년 연구의 방향

청년심리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발달단계로서 청년기양상을 연구하는 경향에서부터 점차 문화적 환경적 사회심리적 요인, 자아성장과 부적응의 지도와 교정에 관심을 두고 성장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적 관점등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1. 발달심리학적 입장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종단적 측면에서 개체의 발생, 양적인 성장, 기능의 변화 즉 성숙의 정도를 밝혀 청년발달의 기초와 근원에 대해 밝힘과 동시에 청년기의 제 특성은 물론 미래 성인으로서의 발달전망을 예측한다.

발달심리학에서는 특히 생리적 변화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생득적, 유전적 요인에

관심이 있고 절대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다. 따라서 청년기의 발달특징은 모든 인류에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2. 사회심리학적 입장

청년기 특성은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집단특성, 민족문화의 특성, 집단의 가치, 규범, 습관등이 심리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문화인류학의 발전은 지금까지 인류보편적인 일반원리로 생각했던 청년기특성이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적 소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Mead, 1939).

Mead(1939)는 사모아의 원주민의 생활을 조사하고 그들에게는 청년기에 나타나는 제특성과 역할습득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년기 갈등이나 적응장애도 거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은 Mead의 연구는 청소년기에 관한 비교심리학적 연구를 촉진시켰고 청소년기 문제도 그들의 환경요인인 사회적·문화적 규범등의 제 요인이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3. 정신위생학적 입장

청소년기가 제2의 탄생기로 신체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성에 눈을 뜨고 분출하는 신체적 욕망을 조절 처리하는 법을 배우며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독립된 인생을 배우는 도전

과 위기의 시기이며 발달과업 수행중에 겪는 불안과 부적응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건전하게 적응하고 발달해 가도록 정신건강을 도와주고 일탈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기의 정신적 장애와 정신건강을 연구하고 정신건강의 예방·증진·치료를 위한 상담심리학, 정신위생학 등이 발전되고 응용되게 되었다. 이들은 개인의 행동에 수반되는 장애요인과 장애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과학적인 치료방안과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이론과 치료기술을 개발한다.

4. 생활지도, 직업지도

급속한 사회의 변천과 직업세계의 변화, 가족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가치관 태도의 변화, 친구세대간의 의식구조의 차, 보다 나은 적응생활을 위한 노력등 모든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해결해야할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도야와 당면문제의 현명한 선택과 적응,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학교에서의 형식교육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전인교육, 심리교육, 성격지도 등의 필요와 자아실현을 돕는 일, 그리고 다양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지도와 변화하는 세계에의 적응과 인간성회복을 위한 노력등이 체계적 학문분야로서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김충기, 1990), 이러한 것들이 교육지도, 직업지도, 성격지도, 사회성지도, 가치관지도, 부적응자지도 그리고 자아실현지도등의 영역으로 연구되고 그 결과가 응용되어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IV. 청소년의 본질과 특성

Hurlock(1969)은 오늘날의 미국의 청소년들을 새로운 종 *A New Species* 이라 부르고 있다. 청소년을 새로운 종이라 부르는 이유는 오늘날의 청소년이 성인들이 자란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행동에서 아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특종」으로 보아야 할 정도다. 그들은 과거 성인들이 살았던 빈곤의 시대, 폐허에서 오늘을 이룩한 재건의 시대, 전통윤리와 가치관에서 살아온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물질문명의 혜택과 첨단문화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윤리와 가치관, 이데올로기속에서 성인과 대립의 세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을 자기들과 같은 사고와 행동을 하는 자신들의 축소판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청소년의 본질과 특성은 발달과정상의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환경의 제경험요인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청년기의 제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사태에서 어떤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주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행동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함으로써 과도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지도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1. 발달과정상의 과도기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이며 위의 두집단과 분리

되는 한계선상에 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양한 태도, 이중적인 가치, 이상과 생활방식속에서 계속적인 충돌을 경험한다. 그는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재하고는 사회적 접촉의 미숙을 경험한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과도기가 그러하듯이 청소년의 과도기에도 불안, 혼란, 갈등, 공포가 따른다.

Lewin(1939)은 청소년기를 주변인기라 하여 어린이같이 어른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성인같이 독립된 사회의 책임자로 행세할 수도 없다. 이동으로서의 지나치게 자랐고 성인으로는 인정을 받지못하는 주변인이다. 여기에 좌절과 불만이 따른다. 이러한 주변인의 입장은 사회의 책임이 없는데서 오늘 무책임한 행동을 수반하기도 한다.

2. 질풍노도의 시기

Hall은 청소년의 감정생활은 상호모순된 양가감정의 동요가 있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급격한 신체의 불균형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성적 발달과 성의식의 발현은 수치심이 강해지고 이성애 끌리면서도 반발하고 좀더 완숙한 자기로 성장하려는 자의식의 발로로 인하여 심한 고독감을 느낀다. 나는 외롭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해해 줄 대상을 찾는다. 감정의 변화가 극단적이어서 과격한 정서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자기본위, 자부심, 자만심 등도 이때 가지기 쉬운 감정이며 동시에 자기비하, 굴종, 도피등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고독을 즐기지만 친구들과의 우정을 크게 원하기도 한다.

3. 자의식의 발현

Rousseau가 청소년기를 제2탄생기라 한 바와 같이 이때는 자의식이 눈뜨는 시기이다. 성적 신체적 발달은 성인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자의식의 형성발전과 함께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간다. 청소년기에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시켜 객관화하여 보고 자기가치를 생존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상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내면적 동요가 있고 객관화된 그러나 주관적 감정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기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자존감, 자기과시 또는 자기비하의 교차심리가 따른다. 차차 성인기로 이행되면서 환경과 조화된 독립된 자기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4. 감정의 양면성

청소년의 심리특성중 감정의 양면성이 있다. 즉 상반되는 두가지 감정, 욕구사이의 모순된 감정을 표출한다.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 순종과 반항, 안일과 개척, 쾌활과 우울, 현실타협과 이상고수, 자만과 자기비하의 감정사이를 왕래한다. 어떤 때는 자신감에 넘쳐 활동적이고 이기적이었다가도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의기소침하고 자기비하에 빠지기도 한다. 주위의 부모나 어른들은 이 양가감정의 일면을 보고 청소년을 오해하고 잘못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을 주장하고 반항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반대로 의존과 순종하려는 심성이 한쪽에 더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강창혁, 1986).

5. 모험의 시기

청소년은 걱정이 있고 질풍노도의 행동과 감정표출이 있으며 모험의 정신이 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이 있다. 사색의 눈을 뜨고 이상을 추구하며 기존의 틀을 부수고 미지에 도전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체험하는 자기성장의 과정이다. 이러한 이들의 모험적인 행동을 이유없는 반항이라고만 간주해버리는 것은 그릇된 생각인 것이다.

6. 정체형성의 위기

청소년기를 Erikson은 심리·사회발달단계의 제5단계로서 자아정체형성 대 역할혼미의 시기라 하였다. 청년기에는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자기가 남들이 지각하는 바와 일치하며 이것이 삶에서의 자기 자리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때 이들은 스트레스와 위기를 경험한다. 자기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가 있으며 종종 다양한 소망과 역할들이 자신에게 맞는지 시험해 본다. 이상주의로부터 파괴주의까지, 불안과 갈등의 체험등 여러가지 경험을 하며 자신의 직업과 행동방향 그리고 미래계획에 대해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역할 혼미가 일어나고 정체위기를 갖게된다. 때때로 이러한 일들은 자신감의 결여에서 온다. 정체감, 역할혼미의 시기에 영화스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치집단 등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권위와 자신을 연관지음으로써 개인적 정체감을 대리로 성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스타, 집단 등의 정체를 자기 것으로 차용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사랑에 빠지는 것도 정체

를 성취하려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스스로의 자아특질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그가 만사해주는 자신의 특질을 보게된다.

정체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자신에 부과되는 역할로부터 도피하거나 때로는 반발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7. 반항

청소년기가 신체적 변화, 성적 성장, 자아의 각성과 더불어 시작되고 이에따라 감수성과 흥분이 높아지고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쉽게 오며 외부에서 오는 자신의 주체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격렬히 반항하고 과격한 자기주장을 하며 이성적 자아에 배치되는 현실에 저항한다. 즉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배양되고 생활공간과 사고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행동방향이나 의사에 상치되는 외부권위에 부딪치게 되고 이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의 주관성, 미숙성이 독단적 행동, 반항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항이란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자, 상위자, 집단의 권위와 지배적인 제도에 대해서 취하는 저항이다. 그러므로 반항은 의존의 역표현 현상이라 볼 수 있다(Cameron, 1947; 정인석, 1988).

반항의 형태를 보면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허세적 반항으로서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된다. 담배를 피운다든가 금지된 국장에

가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둘째, 영웅적 반항으로서 자아이상에 배치되는 것에 크게 반발한다. 학교 선생님과 대한 저항, 부모에 반발등이 그 예이다. 감정표현이 지배적이다.

셋째, 논리적 반항인데 청년후기에 온다. 자신의 문제보다 사회제도, 이념등에 반발하고 조직적 저항을 한다. 그러나 아직 감정과 결부되어 있어 과격한 표현이 따른다(김명훈, 정영운, 1989).

8. 성적 성숙

성의식은 리비도의 쾌락이 제2차 성특징의 발현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된다.

더구나 개방된 성문화, 환경적 자극등은 성에 대한 관심이나 충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의 직접적 표현은 철저히 억제한다.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한편으로는 성에 반발하고 불안·수치·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성적인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며 이성애에 냉담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충동의 무분별한 발산을 한다. 청소년은 성적으로는 성숙되었지만 성행동은 억제된다. 성능력은 있고 충동적 자극은 받으면서 이를 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업자 *sexual unemployed person* 이다(Jersild, 1957). 따라서 대리만족, 대상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반사회적인 탈선행위로도 나타난다. 여기에 적절한 성교육지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9. 교우·집단형성

자아가 발달되어 사회적 독립된 개체로서의

역할이 강요됨에 따라 자아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과 협조하고 타인과 집단으로부터 승인되고 수용되어 인정감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밀시를 받는 일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집단을 위한 행동이 반사회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교우관계를 통해서

첫째, 인격적 결합에 의한 정신적 지주로서 공감자로서의 우정이 생긴다. 성인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에서 생기는 불안, 열등감, 성인과의 정신적 교류의 결여와 사상·사고의 차이, 주위의 압력에 대한 반발, 막연한 생애에 대한 허무감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나타난다.

둘째, 성적·육체적 성숙과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추구함에 따라 생기는 불안을 친구를 사귀음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

셋째, 교우·집단을 통해서 사회성, 사회적 통합적 및 사교적 기술을 익히며 적응행동을 배운다.

넷째, 교우관계에서 보상적 효과를 얻는다. 부모의 사랑결핍 보상, 이성애에 대한 애정의 보상등의 표현일 수 있다.

다섯째, 교우관계, 교우집단에 강한 정서적 통합감을 가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10. 독립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 자의식의 발현과 함께 스스로의 자존의식을 키우고 장래를 위한 준비를 하며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독립의 노력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일과 사랑을 배우고 직업·결혼 인생관등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주체성

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특성은 편원적이고 겪어야 할 과업이나 환경에 따라, 개인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양태 즉 청소년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V.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의 갈등과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중 청년기특성이 가지는 요인은 앞에서 언급되었다. 여기서는 사회문화적요인에서 오는 청소년의 문제를 고찰해 본다.

1. 청년기 연장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는 대중사회, 선진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 적응키 위해 보다 오랜기간의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에서의 역할이 유예된 지불연기의 시기가 보다 길어지게 되었다.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성발달은 더욱 빨라졌는데 성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즉 아동의 자유로움도 갖지 못하고 성인으로서의 역할도 거부된 불안의 세대로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Berger 1971; 한완상, 1973)는 현대사회의 청소년기간은 20여년이 된다고 하였다. 보다 빨라진 청소년의 문제위에 미쳐 성인으로서 역할수행을 못하는 후기청소년 문제까지 겹쳐서 그들의 반항, 비행, 소외, 좌절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게 되었다.

2. 도시화와 대중문화의 확산과 가치관의 혼란

급격한 도시화는 사회문화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 윤리가 거대도시에 혼재함으로서 가치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사회를 규제할 규범이 없어져 무규제사회가 되어 청소년은 의미있는 생활의 방향감을 상실하고 도덕적 판단이 흐려지고 찰라주의에 빠져 방황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대중문화, 매스컴의 확산은 향락문화, 퇴폐문화의 분위기에 쉽게 접하게 되나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금기사항으로 억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해서 성숙된 관능적, 향락적, 퇴폐적 문화에 접하려면 사회규범을 일탈한 행위 즉 반사회적 범죄, 성범죄, 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3. 세대차의 문제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식의 차에 따른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대가 다른 성인과 청소년들은 생활경험이 다르고 교육경험이 다르며 생활문화가 다른 까닭에 상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세대차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문화격차이다. 물질문명과 생활환경은 급속하게 발전되었으나 이에 따르는 문화와 생활규범은 미처 발전되지 못한데서 오는 갈등이다. 도시와 시골, 농경인과 산업사회인의 갈등, 시골농경인과 도시에서 교육받은 그 자손간의 갈등, 새로운 문화에서 자란 청소년과 과거 문화에서 자란 기성인과의 갈등등이 그것이다. 가족주의, 인정주의, 보수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방주의의 대립이 그것이고 관계문화, 인정문화와 소외문화, 단절문화의 대립이 그것이다.

둘째, 윤리규범의 해체와 방종적 민주주의

(?)의 확산이다. 전통사회를 규제하는 윤리와 예절, 연장자에 대한 존경등은 대중사회, 도시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방종적 민주주의의 발달(?)은 남녀노소의 평등사상을 가져와 실질주의, 능률주의와 함께 사회의 연령, 혈연 등에 따른 질서와 서열이 무너졌고 이에 대처할 새로운 윤리규범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치관의 차이이다. 인정주의 가치관, 권위주의 가치관, 혈연주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수평적 평등적 가치관, 합리주의 가치관이 대신하게 되었고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이 개방적 향락적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는데 따른 갈등이 있다.

4. 경쟁사회의 문제

과거의 사회는 상부상조의 사회였으며 경쟁과 협동이 공존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동기부터 경쟁을 요구한다. 경쟁사회에서 조기에 경쟁을 체험케 함으로서 앞으로 타 칠 계속되는 경쟁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의 경쟁은 살인적이다.

내신성적 때문에 옆에 앉은 친구와도 적이 되고 경쟁에 탈락(입시에 낙방)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 최소한 대학입시까지 청소년기의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모든 인간교육을 포기한 채 입시경쟁으로 내몬다.

여기에 낙오하고 탈락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원적으로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에 저항하고 소외되고 일탈행동 가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경쟁에 이기고 성공(?)하는 많은 학생도 신경증이나 열등감등의 문제에 시달린다.

5. 이념적 갈등

우리나라는 유교세대, 일제하세대, 육이오세대, 사일구세대, 육삼세대, 오일칠세대, 육이구세대로 불리는 다양한 연령층의 역사적식이 다른 세대가 의식차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비교적 풍요속에서 그러나 전쟁과 남북대결의 피해를 모르는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이념적 갈등까지 청소년기의 특성과 겹쳐 맹목적이고 과격한 주장으로, 파괴적 행동으로 현실적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나타나 사회문제화하기도 한다.

VI.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청소년의 특성과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존재의의를 지닌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입장에 있는 성인들이 검토하고 이해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자.

첫째,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다. Hurlock(강창혁, 1986)은 선진국의 성인들은 청소년문제를 성장발달과정상의 문제로 보아 많은 적든간에 그들이 필연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과제로,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 이들의 지도도 기성세대의 태도변화와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후진국의 성인들은 청소년문제를 이들의 일탈행동, 파오, 병폐로 보아 적악시하며 비판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이들을 훈육적 억제적 방법으로 교육하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지도에 있어 우선 이들 행동이 발달 과업상에 있을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이들에게 올바른 환경만 제공된다면 이들은 스스로 성장발달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신념이 있을 때 이들에 대한 일관된 관심과 배려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성인들이 즐기고 청소년에게 금지했던, 그러나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퇴폐 매스컴, 출판물, 향락 문화에 청소년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법적, 행정적, 시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화염병, 투쟁, 단식, 비타협, 농성, 여야격돌 등의 극단적 형태를 보아온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이러한 행태들도 근원을 따진다면 정치권에서 유래되어 전파되어 내려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치문화의 선진화, 성인사회의 정화를 통한 모범만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환경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청년문화 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이다. 청년들의 올바른 이상주의, 모험주의, 비판주의, 인본주의 정신이 실험되고 체득될 수 있는 교양, 오락, 체육, 협동, 탐험을 즐길 수 있는 제도와 교육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문교정책에 개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망된다. 지금과 같은 억압적인 임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은 원치 않는 청년문제만 양산하고 고교졸업후 반동적인 반항형태만 키워줄 우려가 많다. 아니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이미 보아오고 있다.

넷째, 가정에서의 과제이다.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형태의 일반화와 부부의 경제활동(뺃벌이) 증가와 결혼가정의 증가는 가정에서의 교육

적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원인이 되고 민주화가 잘못 이해된 부모는 자신이 받았던 억압적 교육의 반작용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방임주의를 택함으로써 가정교육 부재를 초래했다. 실제로 가정교육과 가정에서의 분위기야말로 교육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있는 부모가 많다.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과 선도를 위한 과제이다. 비행 청소년을 위한 시설, 불우아동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청소년 및 부녀담당기관들이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고 몇몇 사설단체에서도 부적응자를 위한 상담·지도활동을 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도 대체로 상담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지도활동이 전문영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30여년이 지나(정영운, 1987)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전문성의 확보가 부족한 감이 있으며 일반 성인이나 학생들의 인식도 부족한 감이 있다. 청소년의 정상적인 자아발달을 돕고 인성지도, 인격지도를 도모하고 이탈된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하여 상담·지도활동의 보다 개선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담요원의 전문화이다. 현재 각 대학의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을 보다 전문화, 추수교육을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문교부에서 교도교사 강습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을 이들의 추수교육에 활용한다면 상담전분가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예산이 요구되지도 않는 장점이 있다. 현재 양성하고 있는 교도교사는 방학기간 단기과정으로 실

제 상담전문가로서의 능력수행에 한계가 있다. 교도교사는 상담교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석사과정 이수자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각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석사과정에서 소요인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프로그램을 각급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일이다. 상담에서 건전한 학생의 심성개발과 자기발전, 자아실현을 돕는 집단성장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과교육위주의 현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 물론 일탈청소년의 치료·선도상담도 병행한다.

셋째, 상담·선도기관의 확충과 예산지원이다. 청소년지도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된 이상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각급학교는 물론 지방 소 행정단위에도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들에게 계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소 운영도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창혁(1986),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 문제의 대처법”, 학생생활연구 제8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경제평론사(1984), 한국청소년대학, 경제평론사.
- 고영복(1964), 사회심리학자, 민조사
- 김명훈, 정영운(1989), 박영사.
- 김충기(1990),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과학사.
- 김홍규(1987), “청소년선도·보호·육성을 위한 사회의 역할”, 학생생활연구 제8집,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송종두역(1981), 청소년이론, 계명대학교 출판국
- 정영운(1987), 한국카운슬링 활동의 현황과 문제, 전국대학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제10차 연차대회 발표논문.
- 박아청역(1983), 현대발달심리학, 보설출판사.
- 정영진(1986), “청소년비행요인과 선도를 위한 사회교육학적 접근방안”, 학생생활연구 제5집, 순천대학 학생생활연구소.
- 정인석(1988), 청소년심리학, 대왕사.
- 한완상(1973),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법문사.
- 홍숙기 역(1987), 성격심리학. 박영사.
- Berger, B.M.(1971), *Looking for America: Essays on Youth, Suburbia and Other American Obsessions*, N.J.: Prentice Hall, Inc.
- Brewer, J.M.(1942), *History of Vocational Guida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 Cameron, N.(1947), *The Psychology of Behavior Disorders*, Boston: Houghton Mifflin.
- Erikson, E.(1967), *Psycho-social Theory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Norton.
- Gesell, A.(1948), *Studie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Gibson, R.L., Mitchell. M.H.(1981), *Introduction to Guidance*, New York: Macmillan.
- Hall, G.S.(1916), *Adolescence*, 2 vol., New York, Appleton.
- Jersild, A.T.(1957),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Macmillan.
- Lewin, K.(1938), “Field Theory and Experiment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pp. 868~897.